

신선·신속·신뢰 '3신 마케팅' 주효...직거래 성공신화 쓴다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안착



개장 7개월만에 고객 8만명 확보
농어가 224곳 매출 20억원 기록
을 생산자협동조합 결성 품질 관리
지난해 '착한 브랜드' 대상 수상
도·농 택배 직거래 모델 자리매김

도시-농촌간 택배 직거래 모델로 자리잡은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가 지역 농업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성공신화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는 개장 7개월만에 고객 8만명, 매출 2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으며, 농어업인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말이다. 강진군의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현황과 성공사례, 성공요인 등을 살펴봤다.



남편과 귀농해 수수와 울무, 잡곡을 키우고 있는 강진군 성전면 송희진씨가 마늘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강진군 강진을 오감통에 마련된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앞 직거래장터에서 고객들이 품목들을 고르고 있다.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농어촌 지역 에 있는 강진 직거래지원센터가 성공한 이유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강진군은 소비시장 트렌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직거래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농어업인들과 손을 맞잡았다.

특히 강진군은 대도시와 비교적 먼 거리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택배 직거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 예상은 적중했다.

강진군 병영면에서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한 품종 '폴라비'를 재배하고 있는 김상운씨(44)는 "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서울 수도권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아낄 수 있어 소득이 상당히 늘었다"고 말했다.

직거래의 장점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이다. 특히 신선한 농수산물들을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시간까지 배달함으로써 신뢰도 확보했다. 이른바 신선·신속·신뢰 등 '3신 마케팅'을 펼친 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직거래 품목들은 전국 최초로 군수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직거래 인증제를 실시해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또 지난해 4월 역시 전국 최초로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조례'를 제정해 사업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24시간 접수체계를 갖춘 '선리콜 후조사'를 원칙으로 한 100% 리콜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망하기 직전인 농가도 구해낸다=강진군은 특히 기존 개별적 고객관리와 체계적인 마케팅 부재, 유통시설 기반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 직거래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섰다.

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이후 택배비와 포장재, 가공시설 지원, 명함과 콘텐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도 갖췄다.

수수와 울무, 잡곡을 키우고 있는 귀농부부



귀농 4년차인 박진천·최현옥씨 부부가 수확한 생표고버섯을 보여주고 있다.

김안석·송희진씨(강진 성전면)는 "잡곡 가공과 정 등 필요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로에 대한 정보교환도 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부부의 지난해 판매건수는 600여건으로 4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택배용 포장재와 콘덴트제 작비를 지원받고 블로그 운영과 마케팅대학 수강으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귀농 4년차로 강진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가고 있는 박진천·최현옥씨 부부(강진읍)는 생표고버섯 재배로 지난해에만 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 부부 역시 택배용 포장재 등을 지원받고 한국지식농업인 성공지역 선진지 견학, 마케팅대학 참여로 직거래 정보와 고객관리 요령을 얻었다. 특히 생표고버섯을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실질소득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지난해 단감 가격의 폭락으로 위기에 빠졌으나 초록민음의 지원 아래 위기를 극복한 농가도 있다. 이춘화씨(55·강진읍)는 초록민음의 농어

가 맞춤형 지원사업의 하나로 가공시설장비를 지원받아 단감을 건조말랭이로 생산 판매해 기존 단감보다 2~3배의 부가가치 상승 효과를 봤다.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컨설팅이 주저앉을 뻔했던 농가를 구한 것이다.

◇평가시스템을 높이면 상품 가치도 올라간다=강진군은 이같은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록민음 참여 농어업인들에 대한 현장 평가와 상품성 검토를 더욱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물론이고 마케팅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이 농가들을 방문해 상품성과 원산지표시, 식품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강화하고 있다. 마케팅대학과 자체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온라인 마케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직거래지원센터 참여 농어업인들은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신선도 유지방법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리콜에 대해서는 100%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강진 농수특산물에 대한 신

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7월에는 스타벅스, 하이마트, 국민은행 등과 함께 2015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농특산물직거래 지원센터 부문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연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업인 조직화와 마케팅 성과가 뛰어났다는 평가와 함께 'aT농산물 마케팅대상 특별상'도 받았다.

◇직거래 지원센터 협력 농어가 300호로 확대한다=1월 현재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에 등록된 농어가는 모두 224곳. 이들은 쌀과 잡곡을 비롯한 과일, 채소, 축산물, 수산물, 청자 특산물까지 모두 15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품목별 매출은 버섯, 수산물, 가공식품, 채소, 약용 순이다.

센터는 올해안에 직거래 농가수를 300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말 고객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연간 30억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플 개발, 오픈마켓 입점, 온라인 방송군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마케팅대학 의무이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안전보호팀 가입, 품질평가단 현장방문, 소비자검증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군수품질인증제를 더욱 확대 시행한다.

운영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운영문 식품유통팀장은 "올해 생산자협동조합 결성, 다양한 지원사업과 품질평가시스템 개발, 농어업인들과 함께 고객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등 세가지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에서는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판매가 큰 효과를 낸다"면서 "초록민음의 농수산물 직거래의 성공모델로 정착되고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좋은 만남을 이끌어내는 도농화합, 상생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농수특산물 '베스트 12'

친환경 김·청자골 토하젓 등 맛·품질 탁월한 건강 먹거리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농수특산물 베스트 12를 소개한다.

매생이세트는 청정지역에서 자라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매생이탕과 매생이 떡국으로 구성돼 있다.

강진 친환경김은 지주식 방식으로 햇빛을 받아 키워냈다. 염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품이다.

청자골 토하젓은 청정지역 강진 읍전에서 서식하는 민물새우를 원료로 만들었다. 양념토하 일반포장과 청자포장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1호인 김전식 병영주조장의 병영설성 사또주는 강진 대표 명주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10년 연속 선정된 프리미엄 호평은 강진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시하고 있다.

된장과 고추장, 간장으로 이뤄진 전통장세트는 강진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100% 국산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5호 백정자씨의 손맛이 일품이다.

7~8월 뜨거운 햇빛을 듬뿍 받고 자란 여주는 혈압개선에 효과적이란 평가를 듣고 있고 HACCP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착한한우세트는 1등급 이상으로 정육알률세트, 갈비찜세트, 꽃등심세트 등으로 가격대가 다양하다.

빛고담과 조청세트는 황칠과 우슬, 작약, 여주, 여성초를 재료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속성시켜 만들었다.

마랑바다에서 나오는 참전복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미용과 자양강장에 좋아 '바다의 웅덩이'라고 불릴 정도다.

참미역과 다시마, 돌김을 함께 묶은 바다마음세트는 품질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덕통산야생물체가 생산자인 잡곡세트는 세 종류로 판매되고 있다. 3만원 이상 구매 때는 배송비가 무료다.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gangjin.center)나 전화(061-433-8844), 문자상담(010-7360-8844)을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선,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태프, 영업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무출산 여성' 희망 33~67세

VIP 희망 여성 학원(음악)원장, 교사 29~53세

공무원, 교사 27~63세

간호사, 회사원 32~58세

자영업, 교사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길 70m 하남동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대산프리모가발